



## 민간부채, 유럽경제 위협

정인영 연구원

### ■ 유럽의 민간부채 문제가 국가부채 문제와 더불어 유럽경제를 위협하고 있음.

-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 각국이 긴축정책을 펼칠 경우 악성대출이 늘어나 민간부채가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- EU 27개국 중 EU위원회가 권고하는 적정 민간부채규모의 기준인 GDP 대비 160%를 넘지 않는 국가는 15개국에 불과함.

### ■ 덴마크, 네덜란드, 스웨덴과 같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나은 국가들 역시 민간부채규모가 EU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기준을 넘고 있음.

-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세금공제혜택을 준 결과 2000년 이후 매년 약 7% 가량 가계 대출이 증가하였고, 이러한 높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오늘날 네덜란드 경제를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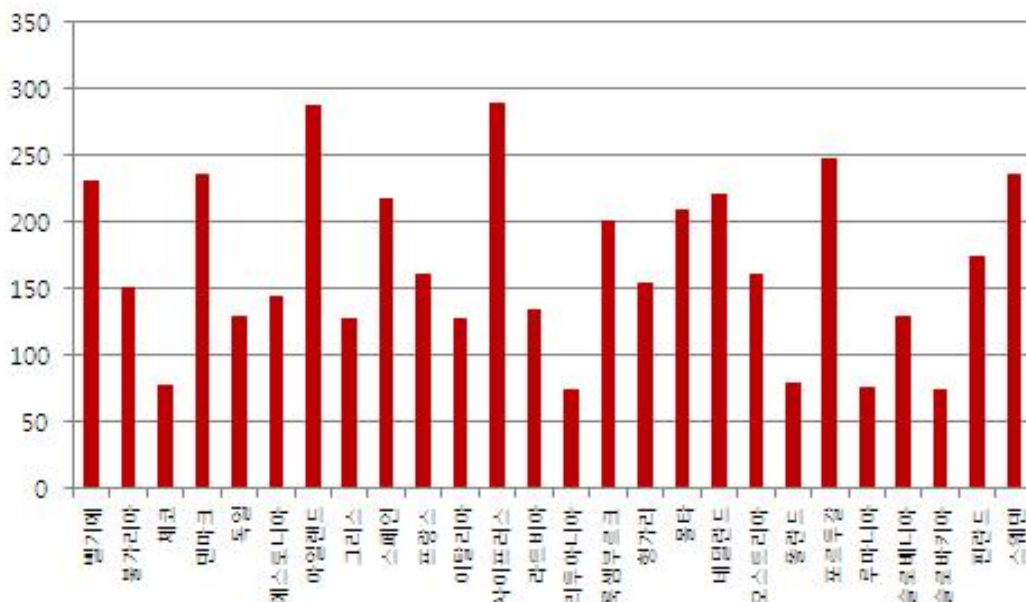
### ■ 스페인, 포르투갈과 같은 기존의 재정위기국은 민간부채 문제가 국가재정위기로 전이된 경우로서 상황이 훨씬 심각함.

- 스페인의 경우 국가부채는 GDP 대비 61%에 불과하지만, 민간부채는 GDP 대비 227%에 이룸.
  - 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기업부채 규모는 미국의 2배, 독일의 6배에 이르며, 기업부채 감축이 향후 스페인의 성장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 밝힘.
- 포르투갈의 경우 국가부채는 GDP 대비 93%이지만, 민간부채는 GDP 대비 249%에 이룸.
  - 포르투갈은 과도한 기업대출이 은행의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음.

- BIS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부채규모 기준으로, 기업부채는 GDP 대비 90% 이상, 가계 부채는 GDP 대비 85% 이상을 제시함.
- 이는 선진국이 직면하고 있는 부채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악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바, 금리를 높여 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.

〈그림 1〉 유럽 민간부채 규모(GDP 대비)

(단위: %)



주: 2011년 3/4분기 기준(단, 불가리아, 사이프러스, 룩셈부르크, 네덜란드, 루마니아는 2010년 기준이고, 아일랜드는 2011년 2/4분기 기준임).  
 자료: EUROSTAT.

(Reuters, 2/22)